

<瀟灑園四十八詠> 靜과 動의 감성

황수정*

<차 례>

1. 머리말
2. <소쇄원 48영>의 靜的 감성
 - 1) 경물 완상의 여유
 - 2) 자아 투영과 성찰
3. <소쇄원 48영>의 動的 감성
 - 1) 원내 계류의 유동성
 - 2) 원림 속 여흥의 멋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河西 金麟厚의 <소쇄원 48영>에 대한 연구이다. <소쇄원 48영>에 드러난 靜的 감성과 動的 감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감성은 시인의 풍부한 심미적 경험에 의한 대상의 인식과 그 대상에 대한 심미적 판단이다. 이를 靜的인 요소와 動的인 요소로 구분하여 시적 감성을 논하였다. 김인후는 도학, 절의, 문장의 三絶로 일컬어지는 도학자이며 시인이다. 또한 不事二君 절의의 표상이다. 김인후는 소쇄원의 축조자인 양산보와 사돈 간으로 소쇄원 내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소쇄원 48영>은 김인후의 소쇄원에 대한 애정도는 물론이고, 시적 감성과 내적 성찰이 두루 표출된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쇄원 48영>의 靜的 감성 발현은 경물 완상의 여유와 자아 투영의 성찰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사계절에 대한 미감을 읊은 것이라든가, 매·난·국·죽 등 사군자에 대한 시상, 그리고 기타 초목에 대한 노래가 있다. 사물을 보

* 조선대학교

는 시각이 긍정적이면서 맑고 청징하였다. 또한 경물에 자아를 투영시켜서 감정 이입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노출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물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로 도학자인 하서가 침잠한 자연에 대한 내성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쇄원 48영>의 動的 감성 발현은 계류의 유동성과 원림 속 여흥의 멋으로 이루어졌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과 시원한 경치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면이 독특하였다. 展流, 通流, 透流, 激湍, 瀉瀑 등 다양한 물의 흐름을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계류의 유동성과 미감 그리고 참 근원에 대한 사유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별서 정원의 특징인 사람들과의 교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선비가 원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흥의 멋을 발현시켰다. 이러한 활동적인 감성은 사람들 간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소통의 즐거움으로 구가되었다.

핵심어 : <소쇄원 48영>, 감성, 靜, 완상, 성찰, 動, 계류, 여흥

1. 머리말

<소쇄원 48영>은 金麟厚(1510~1560)의 작품이다. 김인후의 字는 厚之, 號는 河西이다. 김인후는 도학, 절의, 문장을 모두 갖춘 학자이다.¹⁾ 이것은 하서가 전인적 인격을 갖춘 인물임을 말한다. 하서는 도학과 천문, 지리 등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²⁾ 하서가 살았던 16세기는 도학적인 정치문화의 풍조가 조성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임금의 정당한 治化의 도를 간언하거나, 향리에서 풍속 教化와 인륜

1) “正祖曰 予於金河西 別有起慕焉 夫道學也節義也文章也 無一不備者 獨河西一人矣.” 『河西先生全集』, 「續編」.

2) 권순열, 「하서 김인후 연구」, 『고시가연구』 2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7쪽.

도덕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신진사림들은 詞章學을 배척하고 도학 구현을 표방하였다. 이에 훈구척신들은 사림들을 축출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서는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고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시와 술로 노닐고 강호를 읊조렸다. 더욱이 을사년 이후 벼슬살이에는 뜻을 두지 않고 청병을 들며³⁾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서의 시세계는 대부분 자연 인식의 양상에 기반을 두고 勝景과 遊賞 또는 내적 省察 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의 〈소쇄원 48영〉⁴⁾도 그 범주 안에 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승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표방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장소를 ‘48영’으로 읊은 제영시로서 풍부한 감성과 미의식이 발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高敬命(1533~1592)은 소쇄원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서의 〈소쇄원 48영〉이 소쇄원에 대하여 읊기를 다하였다⁵⁾고 하였다. 이는 하서가 〈소쇄원 48영〉에서 읊은 바가 빼어나면서도 자세함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소쇄원 48영〉은 소쇄원의 풍경을 묘사하며 하서의 자연관과 사상을 형상화한 이취의 융화와 의경을 이루고 있다.⁶⁾ 소쇄원은 梁山甫(1503~1557)가 기묘사화로 인해 능주로 유배된 趙光祖(1482~1519)를 좇아 세상의 뜻을 접고 은거하기 위해 담양에 축조한 개인별서 정원이다. 하서는 양산보와 사돈관계면서 양자징, 양자정 등을 문하에 두기도 하였다. 때문에 하서는 소쇄원에 몇 달씩 기거하면서 당시 임역령, 유희춘 등과 교류하며⁷⁾ 많은 작품을 남겨서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소쇄원에서 지

3) “金麟厚 清謹自守 脫落世累 優遊詩酒朗詠江湖…自乙巳以後 絕意任宦 托病不起.” 『明宗實錄』 卷15, 8年.

“乙巳 先生猝聞仁廟奄棄臣民 號擗屢絕 如不欲生 每於仁廟諱辰 往入深山 痛哭而歸 明廟卽位 文定垂簾 屢有除拜 召旨勤懇 而一切辭以疾病.” 송시열, 『河西先生全集』 卷首, 「河西先生全集序」.

4) 『河西先生全集』 卷之五, 한국문집총간 33. 五言絶句 〈瀟灑園四十八詠〉

5) “嘯時 投瀟灑園…所見無非瀟灑事物 河西金麟厚四十詠 盡之矣.” 高敬命, 『遊瑞石綠』, 『國譯霽峯全書』 中, 539쪽 참조.

6) 趙麟永, 『河西詩學과 湖南詩壇』, 국학자료원, 1995, 200쪽.

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동안의 하서를 비롯해서 <소쇄원 48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고 있다.⁸⁾ 최근의 하서에 대한 연구⁹⁾에서 그의 삶을 재인식하고 정신과 구도를 재조명하였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하서의 삶과 함께 그의 교유 양상을 고찰한 논문도 볼 수 있다.¹⁰⁾ 이와 더불어서 <소쇄원 48영>의 재연 요소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¹¹⁾ 그 밖에 소쇄원에 대한 연구로 심미적 경험 공간으로서 소쇄원의 시정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있다. 또한 음양설을 토대로 원림의 조영과 ‘48영’의 작시에 대한 투영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¹²⁾ 이처럼 많은 연구 업적이 있으나, <소쇄원 48영> 자체에 대한 미학적 의미를 다룬 논문¹³⁾은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쇄원 48영>에 드러난 감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소쇄원 48영>을 靜의 감성과 動의 감성으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감성은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단순한 지각에서부터 심미적 판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¹⁴⁾ 요즘은 대중적인 측

7) “先生與河西 同志相友善 且嫁娶子女 往還講說 至老不廢 每相見欣然 謹 甚討論義理 的確古今 或命觴賦詩 窮日夜不厭 河西至瀟灑園 輒數月忘歸 同時名勝 如林石川 宋圭庵 柳眉巖 李青蓮諸人 慕悅相好 而石川最善。”『瀟灑園事實』卷3.

8) 김인후와 <소쇄원 48영>에 대한 기존연구 조사는 권순열, 앞의 논문과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263~286쪽 등의 논문에서 참조할 만하다.

9) 권순열, 앞의 논문, 5~28쪽.

10) 김동하, 「河西 金麟厚 先生의 生涯와 交遊 樣相」,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57~80쪽.

11) 임준성, 「<소쇄원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고시가연구』 31집, 한국고시가학회, 2013, 247~281쪽.

12) 정경운, 「심미적 경험 공간으로서의 소쇄원」, 『호남문화연구』, 41집, 2007, 315~338쪽; 조태성,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호남문화연구』 44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9, 323~348쪽.

13) 이에 대한 논문으로 박명희(앞의 논문, 276~283쪽)의 연구 4장에서 행위의 형상화와 경물의 형상화로 구분 한 바 있다. 이를 전자는 인물기흥의 방법과 음영성정한 경우로, 후자는 사실적 형상화로 고찰하였다.

14) 이향근, 「시적 감성의 교육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감성마케팅’, ‘감성이미지’ 등이 그것이다. 즉 광고 등을 理性의 잣대가 아닌 인간의 정서와 심리적 반응기체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상으로부터 개인 또는 집단의 관련된 기억이나 정서 등과 어울리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감정과 느낌이 어떤 분위기나 정서를 형성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감성을 시인의 풍부한 심미적 경험에 의한 대상의 인식과 그 대상에 대한 표현기체로 정한다. 즉 미적 인식에 있어서 대상에 몰입하고 그 대상에 대한 미감 표출이라고 하겠다.

칸트는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자의 이성이념 혹은 경험에서 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것들도 감성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유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무결하게 감성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미감적이념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다.”¹⁵⁾라고 하였다. 그래서 美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물의 표상을 悟性和 결합된 快不快와 관련시켰다.

이러한 시적 감성¹⁶⁾을 ‘48영’에서 靜的 감성과 動的 감성으로 구분한

24쪽 참조. 최근에 감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경호(「유학적 감성 세계와 공감」, 『감성연구』 창간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88쪽)는 감성의 번역어를 'emotion'으로 정하며, 인간의 육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정신적 작용의 문제도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태성(「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파장 혹은 스펙트럼」, 『감성연구』 창간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33쪽 참조)은 감성을 심미적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현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기체이다. 심미적 경험의 축적은 개인의 ‘감수성’ 즉 대상에 대해 느끼는 능력 여부에 달려 있고, 심미 경험의 축적이 그 양과 질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청우(「예술의 소통 과정과 감성의 구조」, 『감성연구』 4,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2, 94쪽)는 감성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국면, 그리고 삶과 감성이 모두 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김은주·박해정·김주환(「교육에서의 긍정적 감성의 역할」, 『감성과학』 13, 한국감성과학회, 2010, 226쪽 참조) 등은 효과적인 감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긍정적 감성과 학습 및 동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 감성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킴을 밝히고 있다.

15) I. 칸트 著·李錫潤 譯, 『判斷力批判』, 博英社, 1978, 196쪽.

16) 시적 감성은 일상적인 지각 능력이 아니라, 시라는 양식의 특수한 측면에 대한 감성을 의미한다. 즉 시에 대한 감각적인 능력이며, 일종의 미적 체현이라고 할 수

것이다. 경물에 대한 인식과 미감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고요하다, 정지하다, 침착하다, 깨끗하다 등을 뜻한다. 본고에서는 고요한 분위기, 안온한 정감, 심적 여유와 내적 성찰 등을 발현시킨 정서를 중심으로 보았다. 즉 원림 내 경물을 통한 시인의 유유자적한 감성이 드러난 작품을 분석 기준으로 한다. 또한 動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움직임과 흐름, 활동과 변화를 뜻한다. 여기서는 원림 내 흐르는 물의 흐름과 벗과의 만남을 통한 여흥에 주목하였다. ‘48영’ 속에 표현된 다양한 물의 흐름과 인간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원림 속 계류의 흐름을 묘사하거나, 여흥을 즐기는 시인의 활동성이 드러난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하서의 미적 감식안 발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주제에 따른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감성적 고찰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형상화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소쇄원 48영>을 靜과 動, 두 가지 감성 표출로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 소쇄원이 은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별서 정원의 형태로 교류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크다. 따라서 하서의 <소쇄원 48영> 속에 정적인 감성과 동적인 감성이 상존한다. 이를 포착하여 ‘48영’을 분석하고 영상콘텐츠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소쇄원 48영>의 靜的 감성

사람은 일곱 가지 감정을 받아서 외물에 반응하고 감응한다. 외물에 감응해서 뜻을 노래하게 되니 자연이 아닌 것이 없다.¹⁷⁾ ‘48영’ 속의 정적인 감성은 주로 경물에 대한 포착을 통해 승경과 유상의 여유를 표현한

있다. 따라서 시적 상황에 대한 미감의 발현을 말한다. 이향근, 앞의 논문, 25쪽 참조.

17) “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 劉勰, 『文心雕龍』, 明詩.

작품들이다. 여기에는 사계절에 대한 미감을 읊은 것이라든가, 매·난·국·죽 등 사군자에 대한 시상, 그리고 기타 초목에 대한 노래가 있다. 선비로서 자연을 벗하면서 탐승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유상에 대한 안온 등을 표출한 것이다. ‘48영’ 중에서 이러한 감성이 드러난 작품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소쇄원 48영> 靜의 감성

靜	완상	제1영<小亭憑欄>제9영<透竹危橋>제10영<千竿風響>제11영<池臺納涼>제16영<假山草樹>제17영<松石天成>제26영<斷橋雙松>제27영<散崖松菊>제28영<石趺孤梅>제29영<夾路脩篁>제30영<迸石竹根>제35영<斜簷四季>제36영<桃塢春曉>제37영<桐臺夏陰>제40영<隔澗芙蓉>제41영<散池蓴芽>제42영<襯澗紫薇>제43영<滴雨芭蕉>제44영<映壑丹楓>제45영<平園鋪雪>제46영<帶雪紅樞>제47영<陽壇冬午>
	투영/성찰	제2영<枕溪文房>제4영<負山鼈巖>제5영<石逕攀危>제6영<小塘魚泳>제12영<梅臺邀月>제13영<廣石臥月>제19영<榻巖靜坐>제23영<脩階散步>제24영<倚睡槐石>제25영<槽潭放浴>제31영<絕崖巢禽>제32영<叢筠暮鳥>제33영<壑渚眠鴨>제35영<斜簷四季>

여기에는 경물에 자아를 투영시켜서 감정 이입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노출한 작품들도 볼 수 있다. 경물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로 선비이자 도학자인 하서가 침잠한 자연에 대한 내성적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1) 경물 완상의 여유

자연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태도는 畏敬의 존재, 常道の 구현체, 審美的 대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미를 발견하고 강호가도를 주창한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자연인식은 대체로 常道 구현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연경물에 대해 探美的인 태도를 지향했던 것이 사실이다.¹⁸⁾ 하서의 인

식도 이러한 전통적인 범주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의 경물에 대한 인식 중에서 靜的인 요소로써 시적 감성을 표출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고요하면서도 여유로운 풍경을 그려낸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瀟灑園中景 소쇄원 안의 경치가
 渾成瀟灑亭 온전히 소쇄정을 이루고 있네.
 擡眸輸颯爽 눈 들면 시원한 경치가 보이고
 側耳聽瓏玲 귀 기울이면 영롱한 소리가 들리네.
 제1영<小亭憑欄>

제1영인 소정방란은 소쇄정에서 본 소쇄원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시인은 작은 정자 난간에 기대어 소쇄원의 풍치를 즐기고 있다. 이 작품은 <소쇄원 48영>의 도입부로 작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소쇄원 입구에 들어서면 맞이하게 되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개인정원인 소쇄원은 휴양과 독서, 사색의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당대 문인들의 교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경들을 그리기 위한 서막이다. 따라서 입구의 작은 정자인 소쇄정이 소쇄원의 모든 경치와 어우러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시원하고 상쾌한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颯爽한 경치에 온 감각이 살아 있는 듯 맑은 기운을 전한다.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뿐만 아니라 눈과 귀로 전해지는 감성을 표현하였다. 이는 소쇄원 전체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맑고 쾌적한 공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시원한 바람과 영롱한 울림은 인간의 정서를 일으켜서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颯爽’은 소쇄원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과 시각을, ‘瓏玲’은 원내에서 어우러져 들을 수 있는 청각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소쇄원의 전경에 집중하여 빠져들게 하는 열쇠가 된다. 소쇄원의 이

18) 조기영,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45쪽.

미지 중 가장 처음에 이목을 집중시켜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법이다.

이러한 소쇄원 공간의 이미지는 계절별로 미감을 확인할 수 있다. 봄에 대한 노래는 도화원 무릉의 이미지로 그려냈다.¹⁹⁾ <桃塢春曉>의 승구 ‘繁紅曉霧低’는 붉은 꽃송이와 안개가 어우러져 무릉도원의 아스라함으로 봄날 새벽을 형상화 하였다. 붉은 색감과 새벽안개는 혼미[迷]함을 끌어내면서 자발적인 무릉의 진입으로 이끌고 있다. 여름 공간은 동대의 여름 응달과 연못에서의 납량으로 표현하였다.²⁰⁾ 먼저 <桐臺夏陰> 승구에서 ‘雨露’와 ‘淸陰’으로 맑고 시원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바위 끝에 받쳐진 늙은 나무줄기가 긴 청음을 만들어낸다. 여름날 폭서에 지친 심신을 절로 편안하게 하는 표현이다. 절구에서의 ‘南風’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전구의 ‘舜日’이 뜻하는 순임금의 태평성대에 따른 治國富民을 노래한 「南風歌」²¹⁾의 의미가 있다. 또한 남풍은 남쪽의 바람으로 여름 바람을 뜻한다. 여기서는 ‘夏陰’에 주목한 것으로 소쇄원의 맑고 시원한 기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몸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면 절로 시원해지는 법이다.²²⁾ 이는 <池臺納涼>에서 기구와 승구를 통해 이미 주변 공간보다 특별히 시원함을 말한 바 있다. 시인은 그 원인을 竹과 池로 보았다.

소쇄원의 가을 공간은 산골짜기를 비추는 단풍²³⁾의 빛에 초점을 두었다. 맑은 단풍에 대한 표현을 ‘楓葉早驚霜’이라 하여 이른 서리에 단풍잎이 선명해짐을 묘사하였다. 산골짜기 물빛에 어리는 단풍으로 그려냈다. 겨울에 대한 이미지는 애양단의 겨울 낮과 원내 내리는 눈으로 구축하였다.²⁴⁾ 애양단은 소쇄원 중에 별이 가장 잘 드는 곳이다. 원내 대표적인

19) “春入桃花塢 繁紅曉霧低 依迷巖洞裡 如涉武陵溪.” 제36영<桃塢春曉>

20) “巖崖承老幹 雨露長淸陰 舜日明千古 南風吹至今.” 제37영<桐臺夏陰>

“南州炎熱苦 獨此占涼秋 風動臺邊竹 池分石上流.” 제11영<池臺納涼>

21)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孔子家語』 卷第八, 「辯樂解」第三十五.

22) 이종목, 『한시마중』, 태학사, 2012, 337쪽.

23) “秋來巖壑冷 楓葉早驚霜 寂歷搖霞彩 婆娑照鏡光.” 제44영<映壑丹楓>

24) “壇前溪尚凍 壇上雪全消 枕臂迎陽景 鷄聲到午橋.” 제47영<陽壇冬午>

양지로 햇빛의 따사로움으로 절로 녹아드는 마음을 그려냈다. 바로 단 앞의 시냇물은 얼었어도 단 위의 눈은 모두 녹아내리는 안온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나른함은 오수에 빠지게 하면서 긴 닭울음소리가 오히려 나른한 정적으로 평화롭게 하였다. 또 다른 겨울 정경에서 시인은 눈을 부귀와 연결시킨다. 눈앞을 압도하는 흰 눈의 가득함이 虛 또는 閒의 공간을 滿과 富로 채운 듯 비유하였다.

이처럼 소정 난간에 기대어 체감했던 삼상함과 영롱함은 소쇄원 사계절 모습을 통해 더욱 다채롭게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봄의 안온한 휴식과 여름의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오색의 가을빛과 겨울 별의 따스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 시들은 자연의 소리들과 어우러져 소쇄원의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한층 부각시킨다.

가)

已向空邊滅 이미 허공으로 사라졌다가
還從靜處呼 다시 고요한 곳으로 불어오네.
無情風與竹 바람과 대는 무정한 것이건만
日夕奏笙竽 밤낮으로 피리를 연주하네.
제10영<千竿風響>

나)

泔泔循除水 콧물 물은 뜰을 따라 흐르고
橋邊樹二松 다리 가에는 두 그루 소나무가 서 있네.
藍田猶有事 남전에도 오히려 일이 있을 것인데
爭及此從容 어찌 이 한가한 곳에 이르렀는가.
제26영<斷橋雙松>

가) 시는 대나무와 어우러진 풍향을 묘사하였다. 수많은 대나무 사이로 불어대는 바람 소리에 주목하였다. 소쇄원은 입구부터 대나무로 둘러싸인

“不覺山雲暗 開窗雪滿園 階平鋪遠白 富貴到閒門.” 제45영<平園鋪雪>

곳이다. 대나무 호칭은 竹, 脩, 竿, 筠 등이 있다. 중국 시 <綠筠軒>²⁵⁾을 보면, “밥 먹을 때 고기가 없을지언정 거처하는 곳에 대나무가 없을 수 없네(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라고 하였다. 선비의 지조와 강인한 절조를 표상하는 것으로 선비는 속됨을 멀리하고 고상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 수척해 지면 살찌게 할 수 있으나, 한번 속된 길로 접어 든다면 고칠 수 없음을 묘사하였다.

여기서는 ‘千竿’으로 수많은 대나무를 뜻한다. 대나무에 붙어대는 바람 소리는 인적이 끊긴 고요함을 묘사한다.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라면 대바람 소리에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화자는 많은 대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였다. 이로써 차분하게 심적 여유를 찾고자 하였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소리를 긍정적으로 그리면서 마치 피리젓대의 아름다운 소리와 견준 것이다.

나) 시는 물소리와 두 그루 소나무의 조화를 그려냈다. 韓愈의 <藍田縣丞廳壁記> 중²⁶⁾에는 “남쪽 담 밑 굽은 대 곧은 줄기 의연히 서로 지지하는 듯하고 물은 팔팔 섬돌을 따라 소리 내며 흐르네.”라는 구절이 있다. 최사립이라는 인물이 유능하였으나, 벼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고을의 현승이라는 직책이 되었다는 고사이다. 최사립은 일에 쓰임이 없게 되자, 탄식하면서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는 이가 있으면 지금은 공사 중이라 하였다는 고사를 차용하였다. 이는 남전을 소쇄원과 비교하면서 소쇄원의 적막함을 강조한 것이다.

소쇄원은 물의 흐름이 살아있는 곳이다. 원내를 가로지르는 물줄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물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물이 흐르는 모습보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瀾瀾’이라는 힘차게 흐르는 소리에 대한 표현은 곳곳하게 버터내는 소나무의 기상과 어우러진다. 『論語』

25)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士俗不可醫 傍人笑此言 似高還似癡 若對此君仍大嚼 世間那有揚州鶴.”

26) “南牆鉅竹千挺 儼立若相持 水瀾瀾循除鳴 斯立痛掃漑 對樹二松 日哦其間 有問者輒對曰 余方有公事 子姑去.” 한유, <藍田縣丞廳壁記> 중에서

에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라 하였다. 세상의 난관에 봉착해도 변함없이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는 소나무에 대한 표상이다. 여기서는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랜 세월 버텨온 강인함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아슬한 공간에 버티고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는 시인의 기상인 동시에 시대의 표상으로 그려졌다.

이처럼 두 시에서 소쇄원과 시인의 정서는 청각적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된 적막을 그렸다. 경물 완상의 여유는 유유자적함에 이르고 시인의 심성을 더욱 유연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면서 맑고 청징하다. 또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심성을 숨기는 듯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

2) 자아 투영과 성찰

여기서는 시인의 섬세한 시적 감성과 도학자의 깊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하서는 사물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도학자로서 심신수양과 학문적 연월에 근거한 것이다. 경물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자아를 투영시켜서 내면적 성찰을 추구한 작품을 볼 수 있다.

石老雲煙濕 오래된 돌에 운무가 스미니
 蒼蒼蘚作花 푸르고 푸른 이끼가 꽃이 되었네.
 一般丘壑性 이러한 구학의 성품은
 絕意向繁華 변화한 곳 향할 뜻이 없네.
 제18영<遍石蒼蘚>

위 시는 시인의 섬세한 관찰과 자아 투영을 알 수 있다. 정원을 이루는 정경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이끼 낀 돌과 안개의 습함이 이루어낸 현상을 절묘하게 시화하였다. 여기에 시인의 감정을 투영하였다. 익숙한 모습으로 오래 정원에 있던 돌은 마치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듯 연륜을 입혔다. 따라서 ‘石老’로 ‘蒼蘚’을 접하면서 세월을 입듯 어우러져 있음을 그렸다. 이러한 미시적 관찰은 전체 소쇄원 정경의 한 축을 이루면서 미적 감성을

완성하게 한다. 또한 시의 색감을 풍부하게 하여 ‘雲煙’, ‘蒼蒼’ 등 시각적인 면모를 다채롭게 하였다.

시인은 소쇄원 언덕 골짜기 정경을 익숙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다. 창창한 이끼가 마치 꽃을 이루듯 변함없음과 한결같음에 주목하였다. 이를 시인의 자기 투영으로 연결하였다. 세상의 명예나 부의 변화한 뜻을 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선비의 고요한 정조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구와 승구의 경물 완상을 통해 전구와 결구에 시인의 생각과 뜻을 담아낸 것이다. ‘石老’와 ‘雲煙’의 조화로 ‘蒼蘚’을 이루었다. 이는 소쇄원의 한 정경이 시인의 자아 투영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또한 ‘丘壑性’은 산수가 그윽하고 아름다운 곳을 좋아하는 성향을 말한다. 즉 시인의 山水癖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정서가 표현된 작품으로 제30영<迓石竹根>²⁷⁾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바위틈에 솟아난 대나무 뿌리에 주목하였다. 대나무 뿌리에 대한 묘사를 ‘霜根’으로 묘사하여 시인의 심정을 대변하였다. 기구에서 이를 고결한 기개로 형상화하여 오염에 물듦을 ‘恥’로 단정하였다. 이는 시인의 굳은 사고로 고결한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결구에서 이러한 굳은 정신은 세월이 흐름에 더욱 견고해 지는 것으로 그려냈다. 석죽과 시인의 감성은 하나로 중첩되어 동일시하였다.

가)

露臥青天月 청천의 달 아래 나와 누워
 端將石作筵 단정히 돌로 자리를 삼았네.
 長林散淸影 깊은 숲 흩날리는 맑은 그림자
 深夜未能眠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네.
 제13영<廣石臥月>

나)

林斷臺仍豁 숲이 끊기고 매대가 환히 트이니

27) “霜根恥染塵 石上時時露 幾歲長兒孫 貞心老更苦.” 제30영<迓石竹根>

偏宜月上時 달 떠오를 때가 유난히 좋네.
 最憐雲散盡 가장 좋은 것은 구름 다 흩어지고
 寒夜映氷姿 차가운 밤에 비치는 맑은 자태네.
 제12영<梅臺邀月>

위 두 편은 달맞이하는 시인의 감성을 그려냈다. 달은 일반적으로 고향 생각, 멀리 떨어져 있는 님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묘사된다. ‘48영’ 속에 그려진 달맞이는 화자의 내면적 성찰에 주목하였다. 정적인 고요한 순간 어둠을 밝히는 달빛에 정신적 맑은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위 두 편의 양상은 달을 보는 상황과 분위기가 같은 듯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가) 시는 기구에서 호탕하면서도 통창한 멋을 그렸다. ‘青天月’의 광활함과 ‘露臥’의 거침없음이 호쾌하다. 시각의 확대와 공간의 구성이 시원스럽다. 승구에서 이러한 기개는 계속된다. ‘廣石’을 돛자리 삼아 눕는 시인의 자세가 거침없다. 이처럼 기구와 승구의 흐름은 일사분란하게 달을 보려는 시인의 호쾌한 심정을 담았다. 그러나 전구에서 시적 긴장감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즉 일점 바람 속에 흔들리는 달빛을 그렸다. 마치 소옹이 <清夜吟>에서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라고 읊었던 것처럼 순간 어우러짐에 대한 긴장감과 도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였다. 즉 ‘長林散清影’이라 하여 맑은 그림자인 달빛이 바람에 일렁여 숲에 어른거림을 묘사하였다. 이는 정중동의 긴장감과 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구에서 시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달밤의 흥취와 더불어 자신의 내면적 성찰에 대한 표현이다. 고요하고 깊은 밤, 시인은 달빛에 실은 감성에 한껏 젖어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未能眠’이라 하며 자신의 내면세계에 침잠하였다.

나) 시는 ‘豁’이 ‘寒夜’의 시점과 ‘氷姿’한 달의 묘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맑고 청정한 기운이 배가되었다. ‘氷姿’는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모습을 말한다. 기구에서 매대에 올라 바라본 시야가 넓게 트였음을 알 수 있다. 구름이 걷히고 맑게 달이 떠오르는 순간에 대한 희열을 그렸다. 어두운

밤, 고요한 순간의 맑은 달빛은 시인에게 멋스러움의 정취인 동시에 혼자만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순간이기도 하다. 특히 시인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름이 모두 사라지고 맑게 비치는 ‘氷姿’의 모습을 꼽았다. 맑고 깨끗한 순간에 대한 동경이자 화자의 청정한 정신세계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3. <소쇄원 48영>의 動的 감성

소쇄원은 별서의 이상적 공간 구성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추었다. 제월당과 광풍각, 그리고 초정을 갖추었다. 안채와 사랑채가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었다. 현존하는 별서 가운데 그 규모와 수준면에서 단연 손꼽을 만하다.²⁸⁾ 소쇄원을 구성하는 자연적 요소는 계절별로 철 따라 피는 화초와 각종 새와 동물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특히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과 시원한 경치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면이 독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동적인 감성 표현으로 보고, 그 유동성과 여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계류의 흐름을 표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의 다양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展流, 曲流, 通流, 透流, 激湍, 瀉瀑 등 다양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물 흐름의 역동성과 미감 그리고 참 근원에 대한 사유를 엿볼 수 있다. 이에 ‘48영’ 중에서 動의 감성이 표출된 작품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솔미디어, 2007, 52쪽 참조.

표2) <소쇄원 48영> 動의 감성

動	계류	제3영<危巖展流>제7영<剝木通流>제8영<春雲水碓>제14영<垣竅透流>제15영<杏陰曲流>제34영<激湍菖蒲>제38영<梧陰瀉瀑>
	여흥	제20영<玉湫橫琴>제21영<汎流傳杯>제22영<床巖對棋>제39영<柳汀迎客>제48영<長垣題詠>

여기에서는 별서 정원의 특징인 사람들과의 교류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²⁹⁾ 이는 선비가 원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흥의 멋으로 표출되었다. 바둑 내기와 술잔 돌리기, 가야금 쳐기, 손님맞이 등에서 여흥을 누리는 멋스러운 생활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동적 감성은 사람들 간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소통의 즐거움으로 구가되었다.

1) 원내 계류의 유동성

流動은 끊임없이 흘러 움직여서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현상을 말할 때 흔히 쓰인다. 즉 기운이나 맥락이 멈추어 있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사고가 멈추지 않고 물이 흐르듯 약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유동을 형용하는 말 가운데 ‘天機流動’이란 표현이 있는데 천기 또는 생기가 흘러 넘쳐 움직이는 자연현상을 표현한다.³⁰⁾ 말 뜻 그대로 흘러 움직이면서 변화를 주도한다. ‘48영’ 속에 계류는 다양한 유동성을 표출하고 있다. 때론 생기 넘치는 활발함으로, 때론 잔잔한 흐름 속에 사유의 근원에 질문을 던지곤 한다.

溪流漱石來 시냇물이 돌을 씻으며 내려오니
一石通全壑 하나의 돌이 온 골짜기로 통하네.
匹練展中間 한 필의 비단이 중간에 펼쳐지니

29) 이에 대한 내용은 권수용의 「瀟灑園의 歷史와 人文活動 研究」(전남대:문화재학협 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08) 3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되어 참고할 만하다.

30)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615쪽.

傾崖天所削 기울어진 비탈은 하늘이 깎아놓았네.
제3영<危巖展流>

소쇄원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石景을 들 수 있다. 넓고 평평한 너럭바위는 시야를 가득 채우며 시각적 흥미를 더한다. 이 같은 암석의 경관은 천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또한 흐르는 물로 장식된 水景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³¹⁾ 지금은 수량이 약해져서 옛 모습의 정취를 모두 살려내기 어렵지만, 물이 풍부했던 소쇄원의 중심 경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는 소쇄원 전경의 미적 역동성으로 볼 수 있다. 원내를 흐르는 계류의 힘찬 기상과 멋스러움이 전해진다.

기구에서는 계류와 돌의 어우러짐을 그렸다. 시냇물이 돌을 덮으면서 힘차게 흐르는 모습에 대한 형상화다. 승구는 골짜기를 채울 듯한 큰 바위의 위용이 드러난다. 전구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한 필의 비단이 펼쳐진 것 같다고 비유하였다. 결구는 ‘傾崖’라 하여 ‘危巖’에 대한 표현이다. 기울고 깎아지른 듯 큰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와의 조화를 그린 것이다. 이러한 계류의 흐름에 대한 묘사는 강한 동적인 감성으로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서는 다음 시에서도 읽을 수 있다.

扶疏綠葉陰 무성한 푸른 잎의 그늘
昨夜溪邊雨 어젯밤 시냇가엔 비가 내렸네.
亂瀑瀉枝間 어지러운 폭포가 가지 사이로 쏟아지니
還疑白鳳舞 다시금 백봉이 춤을 추는가 의심했네.
제38영<梧陰瀉瀑>

비가 온 후 불어난 계류의 흐름을 묘사하였다. 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비가 내린 시점은 ‘昨夜’이고 현재 화자의 눈에 들어온 정경은 그 다음날이다. 오동나무 그늘아래 폭포수에 대한 표현이

31) 박준규·최한선, 『시와 그림으로 수놓은 소쇄원 사십팔경』, 태학사, 2000, 23쪽 참조.

마치 선계를 연상시킨다. 또한 색감의 대비도 선명하여 시적 감성의 묘미가 절실하다. 오동나무는 우리 삶과 친숙하다. 그러면서도 오동나무가 있는 곳에 봉황이 오듯 특별한 공간으로의 의미도 있다. 기구에서는 오동나무의 풍성함으로 넉넉한 그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소쇄원 내 오래된 오동나무 가에 밤사이 내린 비로 불어난 물줄기를 그려냈다. 시인의 미적 감성은 섬세한 포착으로 물의 움직임에 감성을 입혔다.

시의 내용처럼 무성한 나뭇가지에 푸른 녹음이 한창일 때는 나무 그늘이 아래 계곡에까지 그늘졌을 것이다. 더욱이 비가 내려 너럭바위 등에 폭포수처럼 장관을 이루면 오동나무 가지사이로 보이는 물줄기는 장관이 아닐 수 없다.³²⁾ 기구와 승구에서 마치 그림을 시작하듯 시적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오동나무 그늘은 나뭇잎들이 성글은 자리를 메꿔 주면서 시원함을 더하고, 거기에 푸른빛을 담았다.

특히, 승구에서는 밤사이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밤사이 변화된 계곡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결구에서는 화자의 시각이 더욱 미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가지 사이로 보이는 폭포수의 미감을 그려내면서 한 폭의 그림 속으로 이끌듯 하였다. 가지 사이로 넘실대는 물결이 마치 오동나무에 내린 백봉이 춤추는 듯한 묘사로 이끌어냈다. 이처럼 섬세한 감성과 동적인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림 같은 영상으로 거듭나면서 생동감을 주고 있다. 다음 시의 계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흐름이다. 비록 크고 힘찬 줄기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작은 물줄기 속에 참 근원에 대한 모색을 담았다.

가)

委曲通泉脈	꼬불꼬불 물의 맥을 통하게 하니
高低竹下池	높고 낮은 대밭 아래에 연못을 이루었네.
飛流分水碓	폭포가 물방아에서 나누어지니
鱗甲細參差	물고기 비늘들이 가늘게 들쭉날쭉하네.

32) 박준규·최한선, 위의 책, 166쪽 참조.

제7영<剝木通流>

나)

步步看波去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보며 가는데
 行吟思轉幽 거닐며 읊조리니 생각이 더욱 그윽해지네.
 眞源人未泝 진원을 사람들 거슬러 오르지 않고
 空見透牆流 공연히 담 구멍을 뚫고 흐르는 물만 보네.

제14영<垣竅透流>

가) 시는 수통에 흐르는 샘 줄기 물이 흘러들어 못을 이루고 다시 나뉘어 흐르는 물굽이를 이룬다. 작은 물줄기 흐름이 다시 모였다가 나뉘지면서 그 속에서 인갭들의 움직임의 포착하였다. 가녀린 흐름 타고 이어지던 물줄기는 여러 번 그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줄기찬 생명력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품으며 생동감을 구축하였다.

나) 시는 사색의 정조를 더한다. 시인의 발걸음은 물길을 따라 맞추면서 함께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생각의 깊이를 더한다. 기구와 승구에서 시인의 사색은 물길이 커지고 깊어지듯 그윽한 지적 풍요로움에 잠긴다. 여기서 시인이 직접 체험에 대한 묘사라면, 전구와 결구는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제시이다. 학문의 구도처럼 물길 따라 걸으며 진원을 찾고자 하였다. 눈앞의 현상에 빠져서 부질없는 세월만 보내는 부류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담 구멍을 통과해 흐르는 물은 진원지를 찾아 거슬러 보지도 않고 눈앞의 현상에만 미혹되기 쉬움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계류의 흐름은 시인의 감식안에 의해 미적 감성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철학적 원류로 근원 구도의 방법으로 차용되기도 한다. 계류의 흐름은 화면의 생동감과 활력을 주었다. 이에 시에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삶의 유구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추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학문적 구도와 염원을 담았다. 이러한 계류의 흐름은 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진취적인 정서와 맞물린다. 그리고 심원으로의 추구로 인한 미래 변

화에 대한 염원을 싣기도 한다.

2) 원림 속 여흥의 멋

소쇄원 원림은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시인묵객들의 발자취와 감성이 서린 곳이다. 하서는 <소쇄원 48영>에서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교류의 미감을 실었다. 멋스런 활동으로 잔잔한 여흥이 있는 아름다운 동적 감성을 그려내고 있다.

列坐石澗邊 석와 가에 둘러앉으니
 盤蔬隨意足 소반의 채소가 아주 풍족하네.
 洄波自去來 소용돌이치는 물에 절로 가고 오니
 盞罍閒相屬 술잔이 한가로이 서로 권하네.
 제21영<洑流傳杯>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만남의 여흥이 전해진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언제나 또 다른 희망과 설렘을 간직하게 한다. 즐거운 자리로 이어지면서 그 흥겨운 만남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이 시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리를 배정하고 만나는 기쁨을 담고 있다. 또한 어우러지는 풍성한 음식들은 모임의 즐거운 요소가 된다. 이로써 시적 여흥이 깊어가고 있다. 전구에서는 한층 모임의 흥겨움이 무르익고 있다. 마치 왕희지의 蘭亭모임처럼 둘러앉아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는 流觴曲水の 정취를 그려냈다. 난정모임은 매년 삼월 삼진날이면 모임을 열어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던 시회이다. <난정기> 중에, “맑은 물과 격류하는 물결이 좌우를 비추며 띠처럼 둘러 있으므로 이것을 끌어다 유상곡수를 만들고 차례대로 벌려 앉으니”³³⁾라고 하였다. 따뜻한 봄날 온화한 기운을 받으며 회포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의 모습이다.

33)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 列坐其次…” 王羲之, <蘭亭記>

이 시에서도 난정의 모임과 같은 정취를 그리면서 한가로움 속에 멋스러운 활동적인 감성을 그려냈다. 이러한 활동은 문인들의 정서와 인간적 교류에 활기를 주면서 멋스러운 여흥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湫流’ 또한 빙빙 돌면서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흐름과 멈춤이 상존하는 순간의 상황이다. 전구의 ‘洄波自去來’처럼 돌아드는 물결이 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였다. 결국은 물에 띄운 술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한가로우면서도 멋스럽게 권하는 술잔의 여유로움을 담았다. 차분하면서도 흥취가 있는 여흥의 멋스런 광경을 그려낸 것이다.

가)

石岸稍寬平 돌 언덕이 조금은 넓고 평평해
竹林居一半 죽림의 절반을 차지했네.
賓來一局棋 손님 와 바둑 한판을 두니
亂雹空中散 어지러운 우박이 공중에 흩어지네.
제22영<床巖對棋>

나)

有客來敲竹 손님이 와서 대사립문을 두들겨
數聲驚晝眠 몇 마디 소리에 낮잠이 깼네.
扶冠謝不及 의관 갖추고 마중 못간 것 사죄하노니
繫馬立汀邊 말을 매놓고 물가에 서 있네.
제39영<柳汀迎客>

위의 두 시는 손님과 어우러진 모습을 담고 있다. 가) 시는 바둑을 두는 모습이고, 나) 시는 손님맞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시가 적극적인 만남의 여흥을 그렸다면, 나) 시는 손님을 맞이하는 상황을 그려냈다. 사람을 대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경과 상황에 대한 묘사가 독특한 흥취를 이룬다.

가) 시는 평평하고 넓은 돌 평상을 장소로 그려냈다. 바둑 두기에 대한 묘사로는 나무 그늘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물살이 흐

르는 평상 같은 돌 바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승구를 보면 화자는 자주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마음 편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벗과 어울릴 수 있는 여흥의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상대할 벗이 찾아온다면 정겨운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 절구의 표현을 보면, 바둑에 치열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亂鬣’이라 하여 바둑 두는 소리로 흥분된 상황을 그려냈다.

나) 시는 버드나무 물가에서 오수에 빠져 자칫 손님에게 실수하였던 일화를 흥미롭게 그렸다. 오후의 나른한 피곤함으로 시원한 물가에 있으면서 잠시 단잠에 빠져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깨닫고 일어나서 황급히 예를 갖추며 손님에게 달려가 본다. 자신의 무례함을 사죄하고자 함이었다. 전구에서 ‘謝不及’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시적 상황을 보면, 화자는 찾아온 손님을 낮잠 자다 제대로 마중가지 못했는데, 손님은 이미 개울가에 말을 매어놓고 있다. 자칫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듯 긴장감이 조성되었으나, 여유로운 객의 모습은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시켰다. ‘迎客’이라는 정황을 통해 화자와 손님 간의 움직임에 주목한 것이다. 급박하지 않은 소쇄원의 정경을 읽을 수 있다. 원림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김인후의 <소쇄원 48영>에 드러난 靜과 動의 감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소쇄원 48영>의 靜的인 감성과 動的인 감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감성은 시인의 풍부한 심미적 경험에 의한 대상의 인식과 그 대상에 대한 심미적 판단이다. 이를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시적 감성을 논하였다.

소쇄원은 양산보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전남 담양에 축조한 별서

정원이다. 양산보는 기묘사화로 인해 능주로 유배 간 조광조를 좇아 세상과의 단절을 논하며 은거하였던 인물이다. 김인후는 도학, 절의, 문장의 三絶로 일컬어지는 도학자이자 시인이다. 또한 不事二君 절의의 표상이다. 그는 인종의 승하로 정치에의 뜻을 접고, 청병을 들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많은 시문은 주로 자연에 대한 인식과 勝景과 遊賞, 그리고 내면적 省察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쇄원 48영> 역시 이러한 그의 시세계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양산보와 김인후는 사돈 간으로 소쇄원 내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임억령, 고경명, 김성원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적·시적교류를 나누었다. 특히 하서는 한번 소쇄원에 들어가면 몇 달씩 기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소쇄원 48영>은 김인후의 소쇄원에 대한 애정도는 물론이고, 그의 시적 감성과 내적 성찰이 두루 표출된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요약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쇄원 48영>의 靜的 감성 발현은 경물 완상의 여유와 자아 투영의 성찰로 드러났다. ‘48영’ 속의 정적인 감성은 주로 경물에 대한 포착을 통해 승경과 유상의 여유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여기에는 사계절에 대한 미감을 읊은 것이라든가, 매·난·국·죽 등 사군자에 대한 시상, 그리고 기타 초목에 대한 노래가 있다. 선비로서 자연을 벗하면서 탐승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유상에 대한 안온 등을 표출하였다. 이는 제1영<小亭憑欄>, 제10영<千竿風響>, 제26영<斷橋雙松>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들 시에서는 경물 완상으로 유유자적함을 그려냈다. 따라서 시인의 감성을 더욱 유연하게 표출하였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면서 맑고 청정하였다. 또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숨기는 듯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다.

경물에 자아를 투영시켜서 감정 이입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노출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경물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아에 대한 성찰로 선비이자 도학자인 하서가 침잠한 자연에 대한 내성적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제12영<梅臺邀月>, 제13영<廣石臥月>, 제18영<遍石蒼蘚>

등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들 작품을 통해 시인의 섬세한 관찰과 자아 투영을 알 수 있었다. 정원을 이루는 정경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혼돈 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연결시켰다. 이를 고요한 내면적 성찰의 순간으로 그려냈다.

둘째, <소쇄원 48영>의 動的 감성 발현은 계류의 유동성과 원림 속 여흥의 멋으로 이루어졌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과 시원한 경치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면이 독특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동적인 감성 표현으로 보았고, 그 유동성과 여흥을 제시하였다. 展流, 曲流, 通流, 透流, 激湍, 瀉瀑 등 다양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물 흐름의 역동성과 미감 그리고 참 근원에 대한 사유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작품으로는 제3영<危巖展流>, 제7영<剝木通流>, 제14영<垣竅透流>, 제38영<梧陰瀉瀑> 등이 있다.

또한 별서 정원의 특징인 사람들과 교류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품으로는 제21영<湫流傳杯>, 제22영<床巖對棋>, 제39영<柳汀迎客> 등에 잘 드러났다. 선비가 원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흥의 멋이 표출되었다. 바둑 내기와 술잔 돌리기, 가야금 켜기, 손님맞이 등에서 여흥을 누리는 멋스러운 생활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동적 감성은 사람들 간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소통의 즐거움으로 구가되었다.

이로써 <소쇄원 48영>을 고찰하였다. 靜과 動的 감성 발현에 주목한 것이다. 정적인 감성은 주로 경물에 대한 포착을 통해 승경과 유상의 여유를 표현하였다. 또한 경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아 투영과 성찰을 이루었다. 동적 감성은 계류의 흐름과 다양한 문화 교류의 형상화를 통해 발현되었다.

참고문헌

『河西先生全集』, 한국문집총간 33, 한국고전번역원.

『瀟灑園事實』

『國譯霽峯全書』

『論語』

『孔子家語』

『文心雕龍』

권순열, 「하서 김인후 연구」, 『고시가연구』 2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7쪽.

권수용, 「瀟灑園의 歷史와 人文活動 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김경호, 「유학적 感性 세계와 공감」, 『감성연구』 창간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김동하, 「河西 金麟厚 先生의 生涯와 交遊 樣相」,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홀미디어, 2007, 52쪽.

김은주·박해정·김주환, 「교육에서의 긍정적 感性의 역할」, 『감성과학』 13, 한국감성과학회, 2010, 226쪽.

김청우, 「예술의 소통 과정과 感性의 구조」, 『감성연구』 4,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2, 94쪽.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 48詠 考」, 『우리말글』 제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_____,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 경인문화사, 2007.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 박준규·최한선, 『시와 그림으로 수놓은 소쇄원 사십팔경』, 태학사, 2000, 23쪽.
-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615쪽.
- 이종묵, 『한시마중』, 태학사, 2012, 337쪽.
- 이향근, 「시적 감성의 교육내용 설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5쪽.
- 임준성, 「〈소쇄원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고시가연구』 3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 정경운, 「심미적 경험 공간으로서의 소쇄원」, 『호남문화연구』 41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7.
- 조기영, 『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研究』, 아세아문화사, 1994, 45쪽.
- , 『河西詩學과 湖南詩壇』, 국학자료원, 1995, 200쪽.
- 조태성,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정 구조와 공간의 미학」, 『호남문화연구』 44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9.
- , 「감성의 발현과 그 방식, 과장 혹은 스펙트럼」, 『감성연구』 창간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0, 33쪽.
- 하서기념회,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평화당, 1994.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文學思想』, 라이프, 1995.
- I. 칸트 著, 李錫潤 譯, 『判斷力批判』, 博英社, 1978, 196쪽.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Sensibility of Stillness and Movement in <Soswaewon48poems>

Hwang, Su-jeong

This study speculates on the <Soswaewon48poems> by Haseo Kim In-Who, focusing on the sense of stillness and sense of dynamic represented by it. Kim In-Who, as a Taoistic scholar and poet, is considered one of outstanding masters of Taoism, constancy, and writing as well as being a symbol of fidelity to his king.

He was a relative by marriage with Yang San-Bo, the founder of Soswaewon, and built a field of diverse exchanges in Soswaewon. Therefore, the <Soswaewon48poems> showed his affection for Soswaewon, poetic sensibility, and inner speculation and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ense of stillness in <Soswaewon48poems> was expressed through speculation on seasonal scenery and self-projection. Here, he described the aesthetic sense of the four seasons through poetical imagination of Four Gracious Plants and songs on other plants. He had a clear and innocent view of things. Also, he projected his ego into the seasonal scenery to reveal his inner speculation. It was his intense perception and introspective expression of nature that Haseo was engaged in as a taoic scholar.

Second, the sense of dynamic in the <Soswaewon48poems> is expressed through the fluidity of the mountain streams and the taste of

elegance in the forest. The scene of cultural exchanges harmonizing with clear water and scenery was unique. It explained the diverse flows of water such as Jenryu, Tongryu, Turyu, Gyokdan and Sapok, and shows the reasons for dynamism, aestheticism, and the true origin of water flow. Also, it showed aspects of friendly exchanges with people as a characteristic of a private garden, and the taste of entertainment in the forest. Such active sentiment was sung through reconcili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Key words : <Soswaewon48poems>, sensibility, stillness, appreciation, speculation, movement, stream, entertainment